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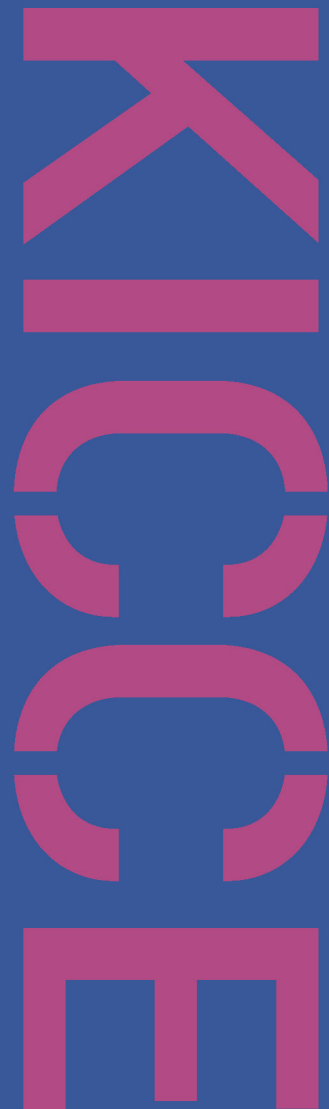
농어촌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충분성에 대한 인식

최효미

1. 연구 필요성 및 분석 개요
 2. 농어촌 영유아 가구(부스터표본) 가계 경제 및 양육비용
 3. 육아서비스 및 인프라 충분성에 대한 인식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참고문헌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농어촌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충분성에 대한 인식¹⁾

최효미 선임연구위원

SUMMARY

- 농어촌 영유아 가구(부스터표본)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평균 529만6천원이었고, 영유아 가구(본조사표본)은 579만7천원으로, 농어촌 영유아 가구의 소득이 약 50만원가량 낮음
- 농어촌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총 332만5천원으로, 본조사표본에 비해 19만3천원가량 적은 것으로 분석됨.
- 엔젤지수, 슈바베지수, 엔젤지수를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본조사표본이 농어촌(부스터표본)보다 세 지수에서 모두 다소 높게 나타남.
- 농어촌(부스터표본)의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월평균 69만9천원으로 본조사의 78만5천원보다 8만 6천원이 적음.
- 거주지역의 육아서비스 및 인프라 충분성에 있어서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농어촌 영유아 가구가 본조사표본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농어촌 영유아 가구가 해당 지역에 정주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체감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공시설 및 공용 공간 등을 활용한 복합 문화시설을 좀 더 촘촘하게 확충할 필요가 있음. 이외에도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이동형 육아지원 서비스의 활성화 및 비대면 교육서비스 등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 본고는 최효미·김은영·박은정·김태우·김길숙(2025).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2025. 육아정책연구소. V장의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됨.

1 연구 필요성 및 분석 개요

가. 연구의 필요성

▶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2025년 5월 19일 발표한 ‘2025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결과 보고에 따르면, 농어촌 군 지역의 삶의 질 종합지수는 평균 37.26점, 도농복합시는 43.29점, 도시형 도농복합시는 51.87점으로, 지역별 삶의 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보도자료, 2025. 5. 20.).

-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격차는 아동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지역소멸의 하나의 원인으로 거론되곤 함.
- 2024년 기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89개에 달하며, 관심지역 또한 1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인출일: 2024. 4. 12.²⁾).

▶ 실질적으로 농어촌 지역 영유아 가구의 육아 현실을 알 수 있는 통계자료 등은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임.

- 육아정책 분야의 대표적인 승인 통계 자료인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의 경우에도 읍면지역 표본의 수는 383가구(최효미 외, 2024: 62)에 불과한 상황이며, 영유아 가구의 가계 경제 상황이나 농어촌 지역의 육아서비스 이용 어려움 등에 대한 설문 문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농어촌 영유아 가구의 실질적인 육아 지원 요구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KICCE 소비실태조사’는 2024년 부스터표본으로 순수한 농어촌 지역(도농복합지 제외)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 162가구를 추가 표집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 본고는 2024년 ‘KICCE 소비실태조사’의 부스터표본 조사를 활용하여, 농어촌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지출 현황과 특징을 개관해보고, 이에 근거한 농어촌 영유아 가구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 이를 위해 2024년 조사된 ‘KICCE 소비실태조사’ 부스터표본뿐 아니라 일반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본조사표본과의 비교 분석 결과를 제시함.

나. 분석 자료

▶ 기존 ‘KICCE 소비실태조사’ 본조사³⁾의 읍면지역 표본은 231개~273개에 불과하며(최효미 외, 2025: 33), 이들 표본 대부분이 순수한 농어촌 지역이 아닌 도농복합지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함.

2)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인출일: 2024. 4. 12)

3)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해 반복 조사되는 자료로, 매해 조사가 이뤄져야하는 표본을 본조사표본이라 지칭함.

- 따라서, 기존 본조사표본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순수한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 가구를 부스터표본 (162가구)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함.
- 여기서 부스터표본의 표집 대상 지역인 순수한 농어촌 지역이란,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속하는 지역이면서 도농복합지역이 아닌 지역을 의미함.
- ‘KICCE 소비실태조사’ 본조사의 읍면지역 표본은 4개를 제외하고 모두 도농복합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함.
- 즉, ‘KICCE 소비실태조사’의 본조사표본에도 도농복합지역인 농어촌 지역 표본이 포함되어 있으나, 순수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 가구를 추가 표본인 부스터표본으로 조사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순수 농어촌 지역 영유아 가구 표본을 ‘농어촌 부스터표본’으로 구분하여 표기함.

▶ 본 연구에서 부스터표본으로 수집한 농어촌 영유아 가구는 총 162가구이며, 본조사표본은 1,821가구임. 구체적인 응답자 특성은 <표 1>을 참조하기 바람.

[표 1] 분석 대상 특성

단위: 가구, 명(%)

구분		농어촌 부스터표본		본조사 (2024년)	
전체		162	(100.0)	1,821	(100.0)
가구원 수	3명 이하	54	(33.3)	705	(38.7)
	4명	76	(46.9)	849	(46.6)
	5명 이상	32	(19.8)	267	(14.7)
평균 가구원 수(명)		3.9	-	3.8	-
맞벌이 가구여부	맞벌이	96	(59.3)	898	(49.3)
	외벌이	66	(40.7)	923	(50.7)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14	(8.6)	55	(3.0)
	300~399만원 이하	27	(16.7)	239	(13.1)
	400~499만원 이하	32	(19.8)	402	(22.1)
	500~599만원 이하	29	(17.9)	381	(20.9)
	600만원 이상	60	(37.0)	744	(40.9)
총 자녀수	1명	57	(35.2)	664	(36..5)
	2명	78	(48.1)	912	(50.1)
	3명이상	27	(16.7)	245	(13.5)
평균 자녀 수(명)		1.8	-	1.8	-
지역규모	대도시	-	-	723	(39.7)
	중소도시	-	-	825	(45.3)
	읍면지역	162	(100.0)	273	(15.0)

주: 1)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및 사업자소득, 부동산소득 및 금융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을 합산한 값으로, 명목소득임.

2) 읍면지역은 부스터표본은 도농복합지 이 외 지역, 본조사는 도농복합지(4개 제외)에 해당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2 농어촌 영유아 가구(부스터표본) 가계 경제 및 양육비용

가. 농어촌 영유아 가구 생활비 지출 및 소득

■ 농어촌 영유아 가구(부스터표본)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평균 529만6천원이었고, 본조사표본⁴⁾은 579만7천원으로, 본조사표본이 농어촌(부스터표본)의 가구소득보다 50만1천원 더 높음.

-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서는 농어촌(부스터표본)과 본조사 모두 외벌이에 비해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이 더 높았으며, 본조사표본의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의 소득 차(190만9천원)보다 농어촌(부스터표본)의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의 소득 차(222만2천원)가 더 큼.
- 총 자녀수별로는 본조사표본이 농어촌(부스터표본)보다 모든 자녀수 구간에서 가구소득이 높았으며, 본조사표본에서는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가구소득도 증가한 반면, 농어촌(부스터표본)에서는 1명일 때 492만원, 2명일 때 557만5천원으로 증가하다가 3명 이상인 경우 528만1천원으로 다소 감소함.

[표 2] 가구특성별 월평균 총 가구소득 비교

단위: 만원, (가구)

구분		농어촌(부스터표본)		본조사	
		가구소득	(수)	가구소득	(수)
전체		529.6	(162)	579.7	(1,821)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620.1	(96)	676.5	(898)
	외벌이	397.9	(66)	485.6	(923)
자녀수	1명	492.0	(57)	554.2	(664)
	2명	557.5	(78)	593.1	(912)
	3명이상	528.1	(27)	599.3	(245)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농어촌(부스터표본)의 월평균 생활비는 총 332만5천원으로, 본조사(전체 영유아 가구) 표본에 비해 19만3천원가량 적은 것으로 분석됨.

- 비목별로 볼 때, 식비(외식비 포함)가 외식비 28만5천원(8.6%)을 포함하여 월평균 99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목별 비중 중 2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 그 다음으로는 보험이 46만원으로 13.8%, 여가 및 문화생활비로는 41만4천원(12.5%)을 지출함.
- 여가 및 문화생활비 지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여행 등(8.7%), 관람 체험학습(1.2%), 완구(1.5%), 도서구매(1.1%) 중에서 가족여행 등에 28만8천원(8.7%)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가 및 문화생활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4) 이하 '본조사표본'으로 표기

- 그 외 교통비로 32만7천원(9.8%), 피복비(의류 및 신발)로는 25만2천원(7.6%), 교육/보육비로 27만6천원(8.3%), 개인유지비(생필품 포함)로 17만9천원(5.4%), 통신비로는 휴대전화비 9만7천원(2.9%)을 포함하며 17만6천원(5.3%), 보건/의료비로는 15만2천원(4.6%), 기기/집기로는 10만원(3.0%)의 순으로 비목별 지출 비중을 보임.
- 본조사표본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대부분 비목에서 비목별 비중이 유사하였지만, 식비(외식비 포함)에서 본조사표본이 농어촌(부스터표본)보다 10만6천원을 더 지출하고 있었고, 교육/보육비에서는 17만9천원을 더 지출하여 식비(외식비 포함)에서의 차이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농어촌 영유아 가구(부스터표본)가 본조사표본보다 더 많이 지출된 비목으로는 보건/의료비와 교통비 비목으로 보건/의료비는 1만4천원, 교통비는 3만8천원을 더 지출하고 있음.

[표 3]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및 비목별 비중: 양육비용과 비목 일치 시

단위: 만원, (%)

구분	농어촌(부스터표본)		본조사	
	생활비 지출 총액	비목별 비중	생활비 지출 총액	비목별 비중
총계	332.5	(100.0)	351.8	(100.0)
1. 식비(외식비 포함)	99.0	(29.8)	109.6	(31.2)
1-1. 외식비	28.5	(8.6)	32.6	(9.3)
3. 기기/집기	10.0	(3.0)	9.1	(2.6)
4. 피복비(의류 및 신발)	25.2	(7.6)	23.4	(6.7)
5. 보건/의료비	15.2	(4.6)	13.8	(3.9)
6. 교육/보육비	27.6	(8.3)	45.5	(12.9)
7. 여가 및 문화생활비	41.4	(12.5)	42.9	(12.2)
7-1. 가족여행 등	28.8	(8.7)	28.7	(8.2)
7-2. 관람 체험학습	3.9	(1.2)	4.6	(1.3)
7-3. 완구	4.9	(1.5)	4.0	(1.1)
7-4. 도서구매	3.5	(1.1)	4.4	(1.3)
8. 교통비	32.7	(9.8)	28.9	(8.2)
9. 통신비	17.6	(5.3)	17.6	(5.0)
9-1. 휴대전화비	9.7	(2.9)	9.9	(2.8)
10. 개인유지비(생필품 포함)	17.9	(5.4)	17.0	(4.8)
11-2. 보험	46.0	(13.8)	44.1	(12.5)

주: 1) 비목 및 세목별 지출액이 없는 경우는 0으로 처리하였으며, 총계 대비 각 비목별 비중은 가구별로 각각 비중을 산출한 후 평균한 값임.

2) 양육비용과 비목을 일치시킨 생활비 지출은 생활비 지출 총액에서 주거비, 이전 지출 등을 제외한 금액.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농어촌(부스터표본)과 본조사표본의 엔젤지수, 슈바베지수, 엔젤지수⁵⁾를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본조사표본이 농어촌(부스터표본)보다 세 지수에서 모두 다소 높게 나타남.

5) 엔젤지수는 가구생활비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 슈바베지수는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 엔젤지수는 영유아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 엔젤지수는 농어촌(부스터표본) 27.8, 본조사표본 29.1이었으며, 슈바베지수는 농어촌(부스터표본) 8.0, 본조사표본 8.1, 엔젤지수는 농어촌(부스터표본) 24.9, 본조사표본 26.6임.
- 즉, 본조사표본이 교육/보육비에 대한 투자도 많은 반면, 식비에 대한 부담감도 농어촌(부스터표본)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가구특성에 따라서는 외벌이가구가 맞벌이 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모든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조사표본의 경우 맞벌이 가구의 엔젤지수가 외벌이 가구의 엔젤지수에 비해서는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 가구특성별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현황

구분		엔젤지수		슈바베지수		엔젤지수	
		농어촌	본조사	농어촌	본조사	농어촌	본조사
전체		27.8	29.1	8.0	8.1	24.9	26.6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7.4	28.1	7.6	7.9	23.7	27.0
	외벌이	28.4	30.0	8.6	8.3	26.6	26.3

주: 1) 엔젤지수는 각 가구별로 (식비/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2) 슈바베지수는 각 가구별로 (주거비/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3) 엔젤지수는 각 가구별로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가구 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주택의 주거비 부담 정도를 질문한 결과, 농어촌(부스터표본)에서는 ‘적당’하다는 응답이 48.1%였고, 별로 ‘부담안됨’이 17.9%, ‘다소 부담됨’이 15.4%, ‘전혀 부담안됨’은 9.9%, ‘매우 부담됨’은 8.6%임.
- 한편, 본조사표본에서는 농어촌(부스터표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적당’하다는 응답이 40.0%로 가장 많았으나 ‘다소 부담됨’이 29.1%로 농어촌(부스터표본)보다 13.7%p가 많았고, ‘별로 부담안됨’이 12.9%, ‘매우 부담됨’이 11.5%, ‘전혀 부담안됨’이 6.6%임.
 -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볼 때, 농어촌(부스터표본)은 24.0%, 본조사는 40.6%라고 응답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비에 대한 부담감은 도시지역 거주자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음.

[표 5] 주택의 주거비 부담 정도

단위: %, 점, (가구)

구분	부담정도					평균 점수	(수)
	전혀 부담 안됨	별로 부담 안됨	적당	다소 부담됨	매우 부담됨		
농어촌(부스터표본)	9.9	17.9	48.1	15.4	8.6	3.0	(162)
본조사	6.6	12.9	40.0	29.1	11.5	3.3	(1,821)
χ^2 / t	18.6(4)***					-3.6***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01$.

나. 농어촌 영유아 가구(부스터표본) 양육비용

■ 농어촌(부스터표본)의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월평균 69만9천원으로 본조사의 78만5천원보다 8만6천원이 적음.

- 농어촌(부스터표본)의 자녀연령별 양육비용은 일관된 패턴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됨.
- 반면, 본조사표본의 경우에는 6세가 92만3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2세가 69만원으로 가장 낮음. 즉, 조사 표본의 양육비용은 출산 초기 다소 높았다가 영아기에 소폭 감소한 후, 유아기에 접어들면서 교육/보육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성을 띠.

[표 6] 자녀 연령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월평균)

단위: 만원, %, (명)

구분	농어촌			본조사		
	양육비용	비중	(수)	양육비용	비중	(수)
전체	69.9	19.1	(211)	78.5	19.9	(2,434)
연령						
0세	58.5	17.6	(20)	71.2	19.8	(161)
1세	89.5	23.2	(22)	70.3	19.0	(323)
2세	70.6	20.1	(25)	69.0	18.7	(341)
3세	55.7	16.8	(30)	70.8	18.6	(365)
4세	75.9	21.1	(39)	79.0	20.0	(400)
5세	71.0	19.0	(38)	87.5	21.0	(424)
6세	67.9	16.8	(37)	92.3	21.7	(420)
F	2.3*(a)	2.4*(a)		13.6*** (a)	7.5*** (a)	

주: 1) 가구조사 자료를 아동단위로 자료화하여 분석한 것임.

2) 연령은 생활연령을 의미함.

3) (a)는 등분산성을 충족하지 못함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5$, *** $p < .001$.

■ 비목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을 살펴보면, 농어촌(부스터표본)의 경우 영유아 1인당 총 양육비용 69만원 중에서 식비(외식비 포함)가 16만3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여가 및 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가 13만7천원, 보험이 9만3천원, 교육/교육비가 9만원, 피복비(의류 및 신발)가 7만8천원 순임.

- 본조사표본은 농어촌(부스터표본)과 마찬가지로 식비(외식비 포함)가 18만7천원으로 가장 많기는 하나, 다음으로 교육/보육비(18만2천원)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로 볼 수 있음.
- 농어촌(부스터표본)과 본조사표본의 비목별 양육비용은 식비와 교육/보육비, 완구 구매비, 보험료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식비와 교육/보육비는 본조사표본이 농어촌(부스터표본)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고, 완구 구매와 보험료는 농어촌(부스터표본)이 본조사표본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즉, 순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와 도시지역(도농복합지 포함)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들 간의 양육비용의 소비 패턴이 일부 상이함을 엿볼 수 있음.

[표 기] 비목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단위: 만원, (명)

구분	농어촌	본조사	t
총계 (사례수)	69.9 (211)	78.5 (2,434)	2.4*
1. 식비(외식비 포함)	16.3	18.7	2.9**
1-1. 외식비	3.9	4.3	1.1
3. 기기/집기	1.9	2.6	1.0
4. 파복비(의류 및 신발)	7.8	7.3	-1.3
5. 보건/의료비	5.7	4.8	-1.5
6. 교육/보육비	9.0	18.2	4.5***
7. 여가 및 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13.7	13.9	0.0
7-1. 가족여행 등	7.3	7.7	1.0
7-2. 관람 체험학습	1.4	1.6	1.0
7-3. 완구	3.0	2.4	-2.2*
7-4. 도서구매	1.9	2.2	1.0
8. 교통비	0.7	0.6	-1.0
9. 통신비	0.1	0.1	1.0
9-1. 휴대전화비	0.0	0.1	1.7
10. 개인유지비(생필품 포함)	5.5	5.1	-1.0
11-2. 보험	9.3	7.3	-4.8***

주: 가구조사 자료를 아동단위로 자료화하여 분석한 것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5$, ** $p < .01$, *** $p < .001$.

■ 농어촌(부스터표본)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은 식비(외식비 포함)로 27.8%였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보육비(19.1%)임.

- 반면, 부담되는 비목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14.8%로 나타남.
- 한편, 본조사표본에서도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으로 식비(외식비 포함)와 교육/보육비가 높은 응답률 순위를 보였으나, 본조사표본에서는 농어촌(부스터표본)과 달리 교육/보육비가 28.9%로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식비(외식비 포함)가 24.8% 순임.
- 또 다른 점은 원리금 상황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농어촌(부스터표본)은 8.6%인데 반해, 본조사표본은 14.6%로 나타났고, 부담되는 항목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농어촌(부스터표본)에 비해 본조사 (10.0%)가 4.8%p 더 낮음.
- 이러한 결과는 농어촌(부스터표본)과 본조사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즉, 농어촌(부스터표본) 가구들은 가구소득이 본조사표본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용도 적게 지출하고 이에 대한 부담감도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됨.

[표 8]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

단위: (가구), %

구분 (수)	농어촌 (162)	본조사 (1,821)
1. 식비(외식비 포함)	27.8	24.8
2. 주거 관리비	4.9	2.8
3. 기기/집기	0.6	0.5
4. 피복비(의류 및 신발)	0.6	0.9
5. 보건/의료비	0.6	0.8
6. 교육/보육비	19.1	28.9
7. 여가 및 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6.8	4.4
8. 교통비/통신비	1.2	0.4
9. 개인유지비	8.6	6.4
10. 금융상품	6.2	4.8
11. 원리금 상환	8.6	14.6
12. 이전지출	-	0.4
13. 기타 상품 및 서비스	-	0.1
14. 부담되는 항목없음	14.8	10.0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양육비용 부담 증가 시 우선적으로 지출을 축소할 비목으로는 농어촌(부스터표본)의 34.0%가 식비(외식비 포함)에서 우선적으로 지출을 축소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30.9%가 여가 및 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에서 지출을 축소할 것이라고 응답함.

- 눈여겨볼 만한 결과로는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으로 교육/보육비가 농어촌(부스터표본)이나 본조사 모두 높은 순위의 응답률(농어촌 19.1%, 본조사 28.9%)을 보였으나, 양육비용 부담이 증가 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지출을 축소할 비목으로는 매우 낮은 응답률(농어촌 1.2%, 본조사 2.9%)을 보임.
- 즉, 부모들은 교육·보육에 대한 지출을 단순한 소비가 아닌, 자녀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며, 다른 지출 항목을 줄이더라도 교육 관련 지출만큼은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 이는 농어촌(부스터표본)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현상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자원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가구(부스터표본)에서도 교육/보육비를 줄이지 않으려는 태도는 교육의 기회비용이 자녀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음.

[표 9] 양육비용 부담 증가 시 우선적 지출 축소 비목

단위: (가구), %

구분 (수)	농어촌 (162)	본조사 (1,821)
1. 식비(외식비 포함)	34.0	37.7
2. 주거/관리비	1.9	1.1
3. 기기/집기	1.2	1.5
4. 피복비(의류 및 신발)	9.3	6.6
5. 보건/의료비	0.6	0.1
6. 교육/보육비	1.2	2.9
7. 여가 및 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30.9	25.9
8. 교통비/통신비	2.5	1.5
9. 개인유지비	6.8	10.1
10. 금융상품	8.6	8.1
12. 이전지출	1.2	1.9
13. 기타 상품 및 서비스	-	0.3
14. 반려동물 관련 상품 및 서비스	-	-
15. 모름/무응답	1.9	2.3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3 육아서비스 및 인프라 충분성에 대한 인식

■ 거주지역의 보육, 교육, 돌봄 기관 및 서비스의 충분성과 관련하여, 영아자녀를 돌봐줄 어린이집의 충분 정도는 본조사표본은 평균 4.9점, 농어촌(부스터표본)의 4.3점으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유아자녀를 돌봐줄 기관이 충분한지에 대한 정도를 알아본 결과에서도 본조사가 4.9점, 농어촌(부스터표본)이 4.2점으로 중간 이상의 점수를 보였고, 본조사가 농어촌(부스터표본)에 비해 더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초등자녀에 대해서 방과 후에 돌봐줄 공공기관이 충분한지에 관해 농어촌(부스터표본)은 평균 4.1점, 본조사는 평균 4.3점을 보임.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지만, 영아자녀나 유아자녀를 돌봐줄 기관에 대한 충분 정도를 살펴본 결과와 비교했을 때 평균점수 중 가장 낮은 점수임.
- 자녀 학원 등 사교육 기관에 대한 충분 정도는 농어촌(부스터표본)이 평균 3.4점, 본조사가 4.6점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임.
- 급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기관과 개별돌봄서비스에 대한 충분 정도는 두 항목 모두 3점대의 평균 점수를 보여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충분 정도를 살펴본 결과에서 제일 낮은 평균 점수대를 보임. 긴급돌봄과 개별돌봄서비스의 충분성 또한 농어촌 지역이 본조사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임.

[표 10] 거주지역의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충분 정도: 보육, 교육, 돌봄 기관 및 서비스

단위: %, 점, (가구)

구분		충분성							평균 점수	(수)
		매우 불충분	←	←	보통	→	→	매우 충분		
영아자녀를 돌봐줄 어린이집	농어촌	3.7	11.1	5.6	40.7	21.6	8.6	8.6	4.3	(162)
	본조사	2.4	4.8	3.7	24.3	32.5	20.7	11.5	4.9	(1,821)
	χ^2/t	45.6(6)***							30.3***	
유아자녀를 돌봐줄 기관	농어촌	3.7	11.1	9.9	32.7	24.7	11.1	6.8	4.2	(162)
	본조사	3.1	4.4	4.0	24.4	30.4	24.3	9.3	4.9	(1,821)
	χ^2/t	43.1(6)***							28.9***	
초등자녀를 방과 후에 돌봐줄 공공 기관	농어촌	3.1	12.3	14.8	35.8	17.9	10.5	5.6	4.1	(162)
	본조사	4.9	6.8	8.0	35.0	28.6	12.6	4.0	4.3	(1,821)
	χ^2/t	23.1(6)***							4.1*	
자녀 학원 등 사교육 기관	농어촌	9.3	22.2	19.1	27.8	14.2	5.6	1.9	3.4	(162)
	본조사	3.5	5.4	6.4	28.2	32.5	17.8	6.3	4.6	(1,821)
	χ^2/t	142.2(6)***							115.1***	
급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기관	농어촌	14.2	19.1	19.1	24.7	17.3	4.3	1.2	3.3	(162)
	본조사	9.0	9.8	12.4	36.2	21.4	9.6	1.6	3.9	(1,821)
	χ^2/t	33.2(6)***							23.2***	
개별돌봄서비스	농어촌	11.1	21.6	16.7	26.5	17.9	4.3	1.9	3.4	(162)
	본조사	5.8	10.4	12.7	40.6	20.4	8.5	1.5	3.9	(1,821)
	χ^2/t	36.3(6)***							22.9***	
기타 육아지원 서비스	농어촌	8.0	9.9	14.2	35.2	18.5	11.1	3.1	3.9	(162)
	본조사	4.8	7.8	10.9	37.5	25.6	9.7	3.7	4.2	(1,821)
	χ^2/t	9.0(6)							4.4*	

주: 7점 척도로, 매우 불충분이 1, 매우 충분이 7점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5$, *** $p < .001$.

■ 거주지역의 문화, 놀이시설 및 서비스의 충분 정도는 평균 점수가 2점 후반에서 4점대의 점수를 보였으며, 본조사표본과 농어촌(부스터표본) 간 큰 편차를 보임.

- 놀이터, 공원, 녹지 등 야외 놀이 공간은 농어촌(부스터표본)의 경우 평균 3.9점이었으며, 본조사는 4.8점임.
- 이 외에 도서관 등 공공시설 및 관련 서비스, 영화관, 체육관 등 문화시설 및 서비스, 체험활동 공간 및 서비스, 키즈카페 등 실내 놀이공간 등의 충분성 또한 농어촌 지역이 본조사표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11] 거주지역의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충분 정도: 문화 및 놀이시설 및 서비스

단위: %, 점, (가구)

구분		충분성							평균 점수	(수)
		매우 불충분	←	←	보통	→	→	매우 충분		
놀이터, 공원, 녹지 등 야외 놀이 공간	농어촌	8.0	11.7	16.7	24.1	26.5	9.9	3.1	3.9	(162)
	본조사	3.2	3.7	6.4	23.6	33.7	20.3	9.1	4.8	(1,821)
	χ^2/t	69.8(6)***							59.2***	
도서관 등 공공시설 및 관련 서비스	농어촌	8.6	10.5	19.8	29.0	20.4	8.0	3.7	3.8	(162)
	본조사	2.3	4.1	7.2	27.5	32.5	18.8	7.7	4.7	(1,821)
	χ^2/t	83.0(6)***							68.9***	
영화관, 체육관 등 문화 시설 및 서비스	농어촌	21.6	25.3	16.0	17.9	13.0	5.6	0.6	2.9	(162)
	본조사	5.2	8.3	10.5	30.9	27.5	14.2	3.3	4.2	(1,821)
	χ^2/t	142.2(6)***							121.7***	
체험활동 공간 및 서비스	농어촌	19.1	28.4	18.5	18.5	9.9	4.9	0.6	2.9	(162)
	본조사	9.7	12.8	12.6	29.7	24.3	8.5	2.5	3.8	(1,821)
	χ^2/t	66.7(6)***							56.1***	
키즈카페 등 실내 놀이 공간	농어촌	27.8	26.5	14.8	16.0	9.3	4.3	1.2	2.7	(162)
	본조사	6.8	7.9	9.2	30.4	27.8	14.6	3.3	4.2	(1,821)
	χ^2/t	180.4(6)***							157.6***	

주: 7점 척도로 매우 불충분이 1, 매우 충분이 7점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01$.

■ 거주지역의 보건/의료시설의 충분성 또한 농어촌 부스터표본과 본조사표본 사이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의 충분 정도는 농어촌(부스터표본)은 평균 2.7점인데 반해 본조사는 4.4점이 나와, 큰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에 관해서는 전체 항목 중에서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였으며, 응급 의료 기관의 충분성 또한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에서 보인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임.
- 다음으로 보건소 등 공공 의료기관은 농어촌(부스터표본) 가구가 평균 3.5점, 본조사표본이 평균 4.2점임.
- 약국이 충분한지에 관한 인식에서는 농어촌(부스터표본)이 평균 3.9점, 본조사표본이 4.9점으로 다른 보건/의료 서비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임.

[표 12] 거주지역의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충분 정도: 보건/의료시설

단위: %, 점, (가구)

구분		충분성							평균 점수	(수)
		매우 불충분	←	←	보통	→	→	매우 충분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농어촌	31.5	21.0	14.2	18.5	9.3	4.9	0.6	2.7	(162)
	본조사	6.1	5.7	9.9	28.2	27.5	17.3	5.4	4.4	(1,821)
	χ^2/t	214.7(6)***							191.0***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농어촌	45.1	19.8	8.0	13.0	8.6	4.3	1.2	2.4	(162)
	본조사	12.5	11.6	11.9	28.7	21.3	10.9	3.1	3.8	(1,821)
	χ^2/t	147.5(6)***							114.6***	
보건소 등 공공 의료기관	농어촌	15.4	10.5	14.8	35.8	14.8	7.4	1.2	3.5	(162)
	본조사	5.7	6.9	10.0	35.9	24.8	12.8	4.0	4.2	(1,821)
	χ^2/t	40.6(6)***							37.1***	
응급 의료기관	농어촌	39.5	17.3	8.6	16.0	13.0	4.3	1.2	2.6	(162)
	본조사	11.3	9.8	10.4	29.4	23.9	12.1	3.1	3.9	(1,821)
	χ^2/t	122.8(6)***							99.1***	
약국	농어촌	8.6	14.8	10.5	32.1	15.4	13.6	4.9	3.9	(162)
	본조사	1.3	2.9	4.2	27.1	32.3	21.4	10.8	4.9	(1,821)
	χ^2/t	134.3(6)***							95.4***	

주: 7점 척도로 매우 불충분이 1, 매우 충분이 7점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01$.

■ 거주지역의 육아지원 관련 지역 공동체의 충분성의 경우에도 농어촌(부스터표본)이 본조사표본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임.

- 육아 관련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사람 혹은 공동체의 충분 정도와 지역 중심의 온라인 소통방의 충분 정도는 각각 농어촌(부스터표본) 평균 3.3점, 3.6점, 본조사표본이 평균 4.1점, 4.3점으로 차이를 보임.

[표 13] 거주지역의 육아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충분 정도: 지역 공동체

단위: %, 점, (가구)

구분		충분성							평균 점수	(수)
		매우 불충분	←	←	보통	→	→	매우 충분		
육아관련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사람 혹은 공동체	농어촌	13.0	24.1	11.1	29.6	13.6	7.4	1.2	3.3	(162)
	본조사	5.9	6.0	10.4	40.6	24.8	9.1	3.2	4.1	(1,821)
	χ^2/t	90.7(6)***							50.6***	
지역 중심의 온라인 소통방	농어촌	9.9	21.0	11.7	30.2	17.3	7.4	2.5	3.6	(162)
	본조사	4.3	3.8	10.3	41.6	27.2	9.6	3.2	4.3	(1,821)
	χ^2/t	104.4(6)***							44.2***	

주: 7점 척도로 매우 불충분이 1, 매우 충분이 7점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7차년도) 원자료.

*** $p < .001$.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가. 요약

▶ 농어촌 영유아 가구들은 본조사표본에 비해 가구소득과 가계 지출이 낮고, 양육비용 또한 적은 것으로 조사됨.

- 농어촌(부스터표본)의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69만9천원으로 본조사표본 78만5천원보다 8만 6천원이 적음.
- 비목별로는 완구 구매비, 보험료 등은 농어촌(부스터표본)의 지출이 유의미하게 더 많았고, 교육/보육비는 유의미하게 적은 특징이 있음.
- 지출액 기준으로 가장 큰 편차가 발생한 비목은 교육/보육비로 농어촌(부스터표본)은 평균 9만원을 지출하는 데 반해, 본조사표본은 18만2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 양육비용 지출액이 낮기도 하지만, 농어촌(부스터표본)은 본조사표본에 비해 부담되는 비목이 없다는 응답이 높은 특징을 보임. 또, 농어촌(부스터표본)은 주거비 부담 또한 적은 것으로 조사됨.

▶ 한편, 농어촌(부스터표본)은 육아서비스 및 인프라 충분성과 관련하여 모든 항목에서 본조사표본보다 낮게 응답되었는데, 특히 보건/의료시설의 충분성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 농어촌(부스터표본)의 보건/의료서비스 충분성은 평균 점수가 7점 만점에 2.4점(분만 가능 산부인과)~3.9점(약국)으로 전체적으로 보통 이하 수준을 보임. 반면, 본조사표본은 3.8점(분만 가능한 산부인과)~4.9점(약국)으로 보통 이상~충분한 편으로 응답되어, 지역 간 큰 편차를 보임.
- 다음으로 문화,놀이시설 및 서비스와 지역 공동체의 경우에도 농어촌(부스터표본)과 본조사표본 사이에 비교적 큰 편차가 존재함.
- 반면, 보육, 교육, 돌봄 기관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농어촌(부스터표본)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4점대)의 충분성을 보임.
- 보육, 교육, 돌봄 기관 및 서비스 중에서는 긴급돌봄서비스(3.3점), 학원 등 사교육기관(3.4점)과 개별 돌봄서비스(3.4점) 등이 낮은 충분성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나. 정책적 시사점

▶ 농어촌 영유아 가구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중증의 질환 및 응급 상황에서는 행정구역이 아닌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 공급망이 구축된 상태에서 농어촌 영유아 가구들이 해당 의료기관을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 수단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또, 감기 등 일상적이거나 경증의 질병 치료를 위한 공공 의료기관(보건소 등)의 확충은 필요해 보임.

이와 함께 몇몇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 제도로, 고령의 어르신 돌봄 혹은 어린이집 순환 간호사 지원 제도와 같이 이동형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원을 좀 더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이들의 치과 진료 혹은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은 이와 같은 이동형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해 체감도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이와 함께 거점 보건/의료기관 인근 등에 환아의 다른 형제자매를 돌봐줄 수 있는 긴급돌봄 기관(혹은 서비스)을 함께 확충하고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농어촌 지역의 공공시설 및 공용 공간 등을 활용한 복합 문화시설의 촘촘한 확충 필요

- 농어촌 지역의 경우 정주 인구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동만을 위한 시설을 여러 개 확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임.
- 그러므로, 다양한 연령이 함께 이용하되 영유아들도 안전하고 재미있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시설 (소규모 다용도 공연장, 도서관, 실내놀이터, 체육시설 등을 공유) 또는 다목적 공공 시설의 확충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 사료됨.
- 한편, 농어촌 영유아에 대한 문화적 지원은 행정구역상 거주 지역을 넘어서는 광의의 생활권역을 감안 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이를 위해 거주지역에서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문화시설 이용의 편의성뿐 아니라 일부 비용 보조 등의 추가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농어촌 지역 영유아 가구의 이동을 지원하는 교통 서비스 확충 필요

- 영유아 가구가 직접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찾아가기 위한 교통 서비스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보건/의료 이용 및 문화 체험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으로 찾아오는 적극적 서비스 지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지역으로 찾아오는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 접종, 치과 진료 서비스 등의 의료 서비스 지원과 찾아오는 공연(인형극, 놀이 활동 등), 이미 시행 중인 이동식 도서관 서비스 등의 확대, 강화가 요구됨.

■ 농어촌 지역 영유아 가구 대상 다양한 교육활동 및 서비스 지원 확대 필요

- 농어촌 영유아 가구들은 영유아기에는 교육/보육비 지출이 도시 지역 영유아 가구에 비해 적은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한 욕구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지역 내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없고 서비스 제공 기관 까지의 거리가 멀어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기인하기 때문임.
- 다양한 예체능 활동에 대한 방과후 활동 지원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때 우수한 교사들은 원거리 이동이 필요한 농어촌 지역의 수업을 꺼려하는 점을 감안할 때, 공적 지원을 통한 교사 확보 및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임.

▶ **농어촌 영유아 가구의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 개선을 위한 정책 홍보 창구 확대 및 다각화**

- 지역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공동체에는 영유아 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동네에서 좀처럼 이러한 정보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농어촌 영유아 가구 대상의 육아지원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 홍보 노력이 요구됨.
- 정부 정책 사업에 대한 안내 수신에 대한 사전 동의를 통해, 카카오톡이나 문자 알림 등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이 외에도 지자체 단위에서 SNS나 유튜브 채널 등을 운영하는 등 젊은 부모들에게 익숙한 매체를 활용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안내와 홍보 노력이 요구됨.

참 고 문 헌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보도자료(2025. 5. 20.). 농어업위, '2025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공표.
 - 최효미·김은설·최윤경·김동훈·김지현·김자연·조혜주(2024).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보고.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김은영·박은정·김태우·김길숙(2025).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 KICCE소비실태조사 2025. 육아정책연구소.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인출일: 2024. 4. 12.).
-

이슈페이퍼 2026-02

농어촌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충분성에 대한 인식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04535 서울 중구 소공로 70 9층
www.kicce.re.kr